

# 첫 금통위... 경제성장률 2.6%로?

“기준금리 1.25% 동결 가능성 높아”...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존 2.8%에서 소폭 낮출 듯”

올해의 첫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9일 시장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에 둘러싸인 현 시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전격 인하한데 이어 6개월 연속 이를 유지한 바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 가계부채 급증,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은이 보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장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오는 20일 미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향후 행보도 안갯속이 놓여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슬슬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등은 한은의 금리정책 운신을 좁히고 있다.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이고, 올리자니 가계에 늘어난 원리금 상환부담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며 “2월 조기 추경논의와 1분기 조기 재정집행 등으로 정책 기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금통위 발언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금리 하락을 지지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션 부국증권 연구원도 “새해 첫 금통위는 경기부양의 정책 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이동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놓겠으나 실제 통



알뜰코너 찾는 소비자들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농축산물 알뜰할인상품코너가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과 태풍의 영향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농축산물 알뜰할인상품코너가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과 태풍의 영향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정책으로 반영될지는 의문이며 통화정책 보다 경제전망이 시장의 주목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통위 직후 발표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6%로 낮췄고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하방리스크가 커 보인다. 1월 전망치를 다시 한번 새로 제시해볼 계획이 있다”고 예고했다.

다만 한은의 수정폭은 0.1~0.2%포인트 소폭 낮추는데 그칠 것이라 전망이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정부가 하향조정을 통해 2.6%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는데 한은은 기존 2.8%

에서 0.2%포인트 내린 2.6%로 전망치를 낮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나 연구원은 “기존 전망인 2.8%를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그러나 정책의 목표라는 상징성 때문에 2.5% 이하의 현실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보다는 0.1~0.2%포인트의 소폭 하향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션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2.6% 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당초 금통위, 수정경제전망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물가설명회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2016~2018년 3년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 대비) 2.0%로 설정하고, 이 범위를 6개월 이

상 0.5%포인트 벗어나면 총재가 나서 직접 목표이탈 원인과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 3개월 마다 같은 기준으로 후속 설명책임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주열 총재는 지난 7월 한은 설립 후 최초로 물가안정목표제 설명회를 연데 이어, 10월에도 물가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적용된 통계청의 물가 신지수 기준으로 10월과 11월 모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 한은은 물가설명회 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신지수 기준으로 12월엔 1.3%를 기록했지만 10~11월 모두 1.5%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엔 물가설명회를 따로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카드 포인트 전액 결제 가능해진다”

신규 카드에 적용... 기존 카드 적용도 긍정 검토 중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신용·체크) 포인트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8개 카드사 중 국민·우리·롯데를 제외한 5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원은 이러한 영업관행이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저해한다고 보고 업계 관계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을 추진했다.

약관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페

지를 골자로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규 카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원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BC·하나카드는 이달부터, 신한·삼성카드는 4월부터 시행한다.

카드사들은 기존 카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 중이다. BC·하나카드는 기존 카드도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결정했고, 신한·삼성카드도 방안을 살피고 있다.

현대카드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하지 않고 100%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포인트 제도를 하반기 신설할 계획이다. /뉴시스

## 자동차업종, 저평가 해소 국면

“글로벌 판매 회복세... 스마트카·신형시장 기대감도”  
“트럼프발 우려 공존... 자동차산업 투자의견은 ‘중립’”

자동차업종이 최근 글로벌 판매 회복세를 보이며 저평가 해소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마트카와 신형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저평가 해소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한양증권 김연우 연구원은 9일 “지난해 3분기 파업 이후 자동차업종의 판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18만 원, 5만5000원, 33만원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지난해 12월 글로벌 출고가 각각 49만 7000대, 31만5000대를 기록하고 국내 공장 수출 물량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4.3%, 11.1%씩 늘었다”며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전전시회(CES)를 통한 자율주행 등 스마트카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김선우 연구원은 “현대차는 CES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아이오닉 EV·HEV의 중간·장기 주행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비록 제한된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고 주행 성능은 디테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주행시험이었지만, 경쟁업체와의 기술력 격차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불식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9월 이후 20만원 밑으로 추락한 현대차 주가는 지난 한해동안 12만9000원~15만9000원 내 박스권에 머물렀지만 올해 15만원선에 안착, 박스권 탈피가 기대되는 모습이다.

현대차가 제시한 올해 판매 목표치도 외형 성장 기대감과 타 업종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끌어올리며 저평가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올해 한해동안 국내 119만8000대, 해외 705만2000대로 총 825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연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올해 선진국시장이 정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신형시장 회복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판단된다”며 “연초 선진국시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형시장의 정책효과,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자동차산업 투자 의견으로는 ‘중립’을 유지했다. 외형 확대가 실적 성장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주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및 재협상 등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뉴시스

##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9월30일 종료

방통위 “이통시장 안정화 정책 펼 것”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통법은 휴대폰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 이상 책정하지 못하게 하면서 불법 보조금 납용과 지원금 차별적 지급을 막고자 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도 적극 추진된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광역권 및 평창 지역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업계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방송사와

의주제작사, 포털·앱마켓과 중소콘텐츠제작사 등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포털사의 콘텐츠 무상 제공 요구, 특정 앱의 선택적 강요,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과 동등결합 위반행위도 집중 모니터링된다.

이밖에 방통위는 이용자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되 위치정보기반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강화하면서 위치정보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